

인문학의 역사, 1920~1930년(5)

제국주의, 현상학 · 행동주의 담론 촉발

이 시기 자본과 무력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야만적인 세계 분할은 지식인들 사이에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상학, 행동주의(behaviorism)의 철학적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인문학적 배경

1차 대전이 끝나자 유럽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된다. 독일이 점유했던 알자스 로렌 지역은 다시 프랑스로 넘어갔고,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제국(1867~1918)은 분리되었으며, 발트해의 독립국가들은 허약해졌고, 오토만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20년대 들어 미국의 경제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활력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의 주식 투기 붐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는 레닌 사후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누르고, 1925년 절대 권력을 쟁취한다.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의 기치아래 산업화, 계획화, 집단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를 숙청과 공포, 피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동차, 마천루, 뮤지컬, 장식미술과 산업 전시물, 그리고 영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으나, 한편으로는 적색공포와 이민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여권의 신장으로 여성들의 옷차림이 대담해졌다. 이 시기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두려움의 엇갈림은 적지 않은 예술작가들에게 허무주의와 초현실주의에 물들게 했지만, 주류 사상은 사변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정신에 대항하려는 논리실증주의에 눈을 돌렸다. 또한 교육계 일각에서도 전쟁과 공포가 파괴한 인간성의 회복과 인류애의 구현을 위해 신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빈(Vienne) 서클' 과 논리실증주의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정신에 과학적 개념으로 맞선다." 1929년 빈(Vienne)에서 과학의 논리적 분석방법을 강조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른바 '빈 서클' 이라고 불리는 모임의 회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모리츠 쉐LIK을 비롯해, 카르나프, 괴델, 노이라트, 라이헨바흐 같은 논리학자들이 그들이었다. 그들에 따르면 관찰된 사실과 증명에 의한 과학만이 지식을 발전시키며, 과학적 지식은 논리학과 수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빈 서클은 비겐슈타인이 1921년 발행한 《논리-철학적 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1921)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빈의 대부호 집안에서 태어난 비겐슈타인은 세계대전 발발 후 군대에 입대할 무렵 이 소책자를 펴냈다. 비겐슈타인은 세계를 사실들의 전체로 이해했다. 언어의 목적은 이 사실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사실들에 의존하는



글_ 성일권 정치학 박사

● 이 글을 쓴 성일권은

파리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파리8 대학에서 정치학 예비박사(DEA)를 마친 뒤 유럽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번역서로 《그들 안의 오리엔탈리즘》(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진보와 그 적들)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들》 등이 있다.

명제들은 의미를 가지며, 확인하기가 쉽다. 형이상학적 이거나 윤리적인 명제들은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것들은 실제적인 세계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부친의 엄청난 유산을 모두 기부한 채 정원사, 가정 교사를 거치면서 몇 년을 떠돌다가 옛 스승인 버틀랜드 러셀의 부름을 받아 캠브리지대로 떠났다. 빈 서클은 구성된 뒤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해체된다. 이 그룹의 공통분모는 형이상학의 거부였지만, 구성원들이 실제로 일치된 견해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 그룹의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그 주위를 맴돌았던 젊은 시절의 칼 포퍼는 이 그룹의 과학적인 시각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은 가정들을 일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유효화하지만, 결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치가 권력을 잡은 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검거에 나서자 빈 서클의 많은 회원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떠난다. 포퍼, 비트겐슈타인, 카르나프, 노이라트...

그 후 빈 서클의 사상가들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과학적 철학의 발전에 대해 크게 기여하게 된다.

신교육 : 자유, 창의성, 자율

논리실증주의 사상적 흐름은 세계대전 이후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신교육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고,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악마의 지침에 따라 우리는 학교를 세웠다. 아이는 자연을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막힌 방에 가뒀다. 아이는 자신의 행위가 뭔가를 위해 기여하길 원했지만, 그 행위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도 갖지 않는다. (...) 아이는 말하길 원했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침묵하도록 강요했다. 아이는 이치를 따지길 원했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암기하길 강요했다. 아이는 과학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미 다 완성된 것을 제공했다. 아이는 야망을 키우길 바랐지만, 우리는 처벌방식을 고안했다. 이처럼, 아이들은 그 것(악마의 지침)에 따라 배운 까닭에 (진실을) 숨길 수 있었고, (사실을) 속일 수 있었으며,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21년 설립된 '국제신교육연맹'의 공동설립자인 아돌프 페리에르의 이 같은 선언은 당시 신교육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목이다. 진보주의적 색채를 띤 이 신교육운동의 주요 목표는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기르는 것, 즉 지적 성장 뿐만 아니라 신체적 · 정서적 성장까지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학교는 어린이 직접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배우는, 즉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험실로 간주되었다. 학습과 관련된 과업을 어린이가 실제로 해봄으로써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다. 교과과정에서는 창조적 수공예술이 강조되었고, 어린이들은 실험과 독립적인 사고를 하도록 고무되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주의 이론가였던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학급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작은 우주로 보았다.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장자크 루소의 《에밀》(1762)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부분적으로는 17-19세기 유럽의 교육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에 루소의 교육이론이 여러 실험학교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정신이 중시되면서, 신교육운동은 또 다시 활발한 기운을 얻는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에두아르 클라파레드가 1912년 제네바에 세운 '장자크 루소 연구소'는 이 같은 정신을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이 연구소 출신의 장 피아제는 1920년대에 유아의 지능개발에 관한 책들을 출간했고, 페르디난드 뷔송과 알프레드 비네는 지능의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신교육 운동은 학계 내에서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인문주의자들과 관념주의자들은 진보주의적 교육의 자연주의적 성격, 어린이의 흥미와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 고전문학과 고전어 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것 등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로 인해 서머힐과 같은 실험학교들은 줄곧 당국에 의해 폐교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1930년대의 신교육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인식주의, 육아중심주의, 자아 표현의 중시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4]